

사람을 죽이지 말라

Do Not Kill Human Beings

마태복음 5:21-26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0년 11월 14일 설교

²¹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²²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²³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²⁴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²⁵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²⁶진실로 네가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돌아가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지요? 성도의 사경도 물론 나누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첫째입니다. 예배가 뭐니까? 예배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온 내 마음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감사드릴 일로 꼭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 사랑도 고백합니다.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서 필요한 것들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예배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온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반갑다” “잘 왔다” “어서오너라” 하시겠습니까? 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 살펴보니 하나님이 오늘은 “반갑다”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라” 하십니다. “예배, 그거 다음에 하고 일단은 돌아가거라” 하십니다. 왜 돌아가라 하십니까? 해결 못 한 문제가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이룰테면 남편이나 아내와 문제가 있거나 자녀하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 심지어 교인, 아니면 얼굴 한 번 못 본 누구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하십니다. 아예 가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는 사람을 절대 내쫓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 열심히 찬양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십니다. 기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헌금도 나는 내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마음 문 열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어떤 경우예요? 내 이웃과 아직 해결 못 한 문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괜히 와서 되지도 않는 예배드린다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할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이웃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였습니다.

무슨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자, 다른 사람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돌아가라 하십니다.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다시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원치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사랑하고 멀어져 놓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왜 사이가 나빠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 하신 걸 보고 돈을 안 갚아서 사이가 나빠진 모양이다 생각하는 데 그건 오해입니다. 재판에 관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주범이 돈일 때가 많지요. 일을 시켜 놓고도 임금을 안 준다든지, 남의 돈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든지 하면 사이가 안 나빠질 수가 없겠지요. 돈은 형제사이를 평생 원수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안 그렇습니다. 가서 빚 갚고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한 거지요. 원망 들을 일이라 하시더니 그냥 누구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 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은 가서 내가 죽여 놓은 그 사람을 살려 놓은 다음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죽이는 죄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게 이 살인입니다. 사람인 내가 나랑 똑같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성경도 살인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있지만 사실은 십계명을 주시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인류가 새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 9:6; 출 21:12, 14; 레 24:17; 민 35:31 참고).

그렇다면 살인이 뭘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게 뭘니까? 보통 살인 하면 사람의 목숨을 끊는 걸 말합니다. 숨 쉬며 살던 사람을 더 이상 숨을 못 쉬게, 그래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게 만드는 게 살인입니다. 사람도 숨 쉬며 산다는 점에서 동물입니다 (창 2:7). 그러니 사람도 다른 동물을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보통 “살인” 하면 동물을 죽이듯 그렇게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죽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목숨을 끊어 죽일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산 채로 죽일 수 있습니다. 숨 쉬며 사는 그 목숨은 그대로 두고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온 우주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뭐가 닮았습니까? 복잡하지만 간단히 살피면 우선 사람이 지정을 가진 인격체인 것이 닮았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창 1:26, 28). 또 관계 속에서 산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사람도 다 한 몸에서 나와 다시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17장). 이렇게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사귄 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기쁨이나 슬픔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그래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 이 하나님과 갈아지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요일 3:2).

욕하는 죄

목숨을 끊지 않고도 죽이는 방법을 주님이 몇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성내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재판을 받는다 하시면서 제 형제를 향해 성을 내는 사람도 똑같이 재판을 받을 거라 하십니다. 재판도

재판 나름이지 성 좀 냈다고 살인자하고 같은 판결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주님은 둘째 제 형제에게 “라가”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힐 것이고 셋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라 하십니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로 유대인 최고 법정입니다. 지옥 불이라 된 말씀은 원문이 “불의 지옥” 그러니까 불타는 지옥입니다. 사람 목숨을 끊은 살인자가 무슨 판결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판결보다 더 비참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살려 놓은 채 죽이는 죄는 동물처럼 목숨을 끊는 것에 비해 조금도 덜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주 쉽습니다. 성내면 됩니다. 욕 한 마디 던지면 죽습니다. 동물한테는 이거 안 통합니다. 동물이 분노가 뭔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개한테 “야, 이 개야!” 해 보세요. 욕이 안 되지요. 개가 좀 똥똥하다고 “야, 이 돼지야!” 그러다고 욕이 되겠습니까? 욕은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쓸모없는 인간이라 부른다면 그건 욕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종류야 여러 가지지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잘 생긴 사람 개성 있게 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수도 없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번역 잘 했지요. “미련한 분” 안 그러지요. 미련하다는 말 다음에는 꼭 놈이 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요. 성경인데 말하기가 좀 그렇지요? 욕이라 그렇습니다. 경멸하는 말입니다. 낮추는 말입니다. 누굴요? 다른 사람요. 누가요? 내가요. 나는 누구이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도 사람,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낮추었습니다. 나보다 낮추었습니다. 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사람 이하로 두었습니다. 숨은 쉽니다. 그렇지만 이미 죽어 버렸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성내는 죄

예수님이 욕을 얼마나 많이 아셨을까, 가끔 궁금합니다. 곱게 자라셨으니 많이 안 배우셨을 것 같고 전지전능하시니 다 아실 것도 같고. 본문에서는 라가, 미련한 놈 두 개만 말씀하셨는데 아마 당시 자주 쓰이던 욕이었을 겁니다. 요즘 쓰는 욕은 따로 있습니다. 종류도 많아요. 어느 것이든 욕은 사람을 낮추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로는 안 죽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을 언제 합니까? 운전할 때 많이 하지요. 명랑한 분위기에서는 욕이 안 나옵니다.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거나, 난 꼭 막혀 못 가는데 법을 어기고 양체 짓을 해 잘 가는 걸 보면 욕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감정의 변화가 옵니다. 예, 성부터 납니다. 분노라 하지요. 그렇게 성이 나면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욕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내는 거나 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분노의 감정도 또 욕하는 문제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다음에 자세히 살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둘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공존합니다. 동시에 나타납니다.

성은 언제 날까요? 성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수동적인 것이고 다 지적인 판단에서 나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지성이 알면 감정은 슬픔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성이라는 반응은 그럼 언제 나올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그 틀린 사람 때문에 옳은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될 때 성이 납니다. 또 그냥 짐작으로는 성이 안 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옳고 남은 절대 틀렸다, 이거 뭐니까? 교만이지요. 다른 감정은 몰라도 분노는 대단히 마

귀적인 감정입니다.

분노는 그냥 차분한 판단이 아닙니다. 너 틀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쳐줄게 하는 다정한 감정이 아니지요. 상대방을 치는, 때리는 감정입니다. 너 틀렸어, 너 나보다 못해, 너 사람 자격이 없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죽어야 돼,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내는 사람은 목숨을 끊은 사람과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죽었으니까요.

무슨 죽음?

숨을 쉬는데, 맥박이 뛰는데 왜 죽었다 하십니까? 왜 나를 살인자라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죽이는 것과 같지요. 숨은 쉽니다.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성을 내는 그 순간 적어도 나한테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이걸 관계의 단절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롬 6장). 죄와 끊어졌다는 말도 되지만, 죄를 향한 내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죄라는 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죄는 아직도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나도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난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죄한테는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웃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입으로 이런저런 욕을 내뱉을 때 내 이웃은 그저 기분이 나빠진 정도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하고는 끊어졌습니다. 나한테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보내어 나를 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뭐 하다 왔습니까? 사람 죽이다 왔습니다. 이 사람은 성을 내 죽이고 저 사람은 욕으로 죽이고 그렇게 수도 없이 죽이다 왔습니다. 산 사람을 죽이다가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들려 주세요, 이게 예배가 됩니까?

내가 이웃을 욕할 때 내 이웃은 죽고 하나님은 상처를 입으십니다. 왜요? 내가 죽인 그 이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말 2:10; 욕 31:15; 34:19). 우리는 다 한 하나님 작품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그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나처럼 우아하고 나처럼 똑똑하고 나처럼 잘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 저 못나고 저 멍청하고 저 궤죄죄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 놓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 놓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라, 갔다가 다시 와라, 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은?

재판 이야기는 그럼 왜 하셨을까요? 주님은 사람을 죽인 내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 것은 숨기고, 때로는 모르고, 남의 것만 보고 성도 내고 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법정에서 따지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한테 맞아 죽었으니 억울하겠지요. 가면 누가 이길까요? 둘 다 사형입니다.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주님은 법정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화해하라 하십니다. 법정에서 가면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려야 되는데 상

대방 잘못도 드러나겠지만 내 잘못도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죽습니다. 이 법정은 심판자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하시는 법정입니다. 거기 가면 모두가 유죄요 사형입니다.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하셨습니다. 못 갚지요. 알거지인 내가 일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마 18:23-35)? 그러니 법정에 가기 전에 서로 풀어야 된다 하십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법정까지 안 가고 도중에 풀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은혜로 삽니까? 내 이웃도 삽니까?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 못 살립니다. 내가 이웃을 살리면 그건 나도 살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셨다는 증거입니다 (요일 3:18-19). 그래서 살리면 삽니다. 죽이면 이웃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습니다. 왜요? 이웃을 죽이는 걸 보니 나도 죽은 사람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습시다. 그러니 죽이면 죽습니다. 살려야 살고 죽이면 죽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니까 예배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알아서는 참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죽어 있으니까요. 살아야 예배고 뭐고 드릴 것 아닙니까 (시 6:5)? 그러니 참 예배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의 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수도 없이 죽여 놓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모르고 하면 엉터리고 알고 하면 거짓이요 최악입니다. 예배드리려 하다가 죄를 더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가야지요.

예배와 삶

주님은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간다” 하셨습니다. “절대” 못 간다 하셨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준으로는 사람 목숨만 안 끊으면 계명을 지킨 겁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의는 그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이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이는 것,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불타는 지옥에 가는 벌을 받습니다. 이웃에게 성내는 사람 이웃을 욕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제물을 놔두고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은 이미 걸렸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얼른 풀어야 됩니다. 내 분노를 뒤집어쓴 사람들, 나한테 욕을 들은 사람들, 그 모두와 얼른 화해하고 다시금 하나가 된 다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아버지처럼 우리를 더욱 반갑게, 더욱 기쁘게, 더욱 풍성한 은혜로 반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나 부모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혹 직장 동료한테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말로, 욕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리는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만의 하나 여기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서로 살리는 사이가 되어야지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남을 살려야 나도 삽니다. 그렇게 서로 살려줌으로 사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갔다가 다시 오라 하시는데 그냥 버티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음 주까지 기다려 주신다면 참 황송하겠지만 그 전에 법정에 달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죽였던 사람도 지금 이 순간 얼른 살려 내게 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수경 목사)